

권리의 포기

| 김흥호 |

힘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받는 사랑의 세계, 바로 그 이유 없이 정성을 쏟는 생명력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오늘의 설교 제목은 ‘권리의 포기’입니다.

“내게 빛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제 빛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된 성경도 있습니다. 빛을 준 자는 곧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을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고발하면 재판소에서 집달리가 나가 집행을 해서 돈을 받게 해 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채권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빛을 잔뜩 졌다. 그러나 이제 안 갚아도 좋다.” 그것이 채권의 포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백만 원을 빚졌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빛을 안 갚아도 좋다고 채권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서 악착스럽게 받아 냈다. 그 말을 듣고 백만 원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언제나 채권을 포기해 준다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일을 하면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돈 안 받아도 좋다, 라고 하면 이것을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세계라고 합니다. 일을 했는데 돈은 안 받아도 좋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제일 소원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 사회주의는 힘 있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 공산주의는 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쓴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을 ‘이상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힘 있는 만큼 일하고 받지 않으며,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 않고도 더 쓴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돈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정이 그런 세계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집에서 대개 아침 7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5~6시에 돌아가는데 그동안 내내 바쁘게 지내요. 여러분은 일요일에 교회에 11시에 오면 되지만 나는 9시 전에 와서는, 불 때는 것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나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나는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여 받은 월급 속에서 내가 먹는 돈은 몇 푼 안 될 겁니다. 힘 있는 만큼 일을 하지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난 대학교회에 와서 송 장로님과 여러 번 싸웠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송 장로님은 날더러 월급이라도 뭘 좀 받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는 절대 안 받겠다고 거지요. 그런데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일했을 때 집사람이 날더러 “당신 월급 좀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월급 받겠어요? 이건 내 교회인데 여러분도 다 여러분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 받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것 없으면 나도 받는 것이 없어야지요. 만일 여기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받으면 이게 내 교회가 되겠습니까.

김동길 선생님에게도 여기 와서 성경 강의해 달라, 설교해달라고 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일체 돈 안 받는다는 거지요. 김동길 선생님은 지금까지 6년 반을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지만 돈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안병무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 왔었지요. 그러나 강사료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것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은 고아원에 보내 주자는 거지요. 요다음이 추수감사절인데 전 같으면 과일 두 알씩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고아들이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다음에 여러분이 먹을 것을 미리 고아원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고아원에 갖다 주어야지요.

이번 여름에도 날더러 휴가를 가라고 돈을 줘요. 아니 내가 무슨 휴가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사람에게 다 나눠 주었어요.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것,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교회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내 집이니까, 일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더 내야지요. 이것이 곧 권리의 포기입니다.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헌금 안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도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냅니다. 우리가 전도비라도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보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일은 하고, 받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일은 하지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르크스도 유태 사람으로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유태인들의 십계명의 제5조거든요. 자기 가정을 상당히 위해요. 마르크스도 자기 아내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공산주의의 이상을 가정에서 찾은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가정처럼 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상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니까 우리가 힘껏 일하는 거지요. 찬양대도 얼마나 애씁니까. 찬양대가 잘했다고 나는 칭찬도 안 합니다. 저희들끼리 잘하지요. 수고했다고 뭘 주는 것도 없어요. 이걸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일하고 안 받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맨 처음에는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는 입으로 하지만 역시 참 기도는 몸으로 해야지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차차 알게 됩니다. 공자도 ‘오십지천명(五十知天命)’이라, “하늘의 뜻이 내게 무얼 원하는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마음으로만, 입으로만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을 하면 사실은 말과 속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 목적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내 생활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항상 기도하라는 말처럼 사는 것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저가 한없이 그림다. 밥 먹을 때도 거저 먹고
일할 때도 거저 하고, 죽을 때도 거저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땅 위에는 거저가 없는 것 같다. 하늘에나 가야 거저가 있을까
믿음의 세계란 거저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요, 소망의 세계도 거저의 세계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체 받지 않는다. 내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니까. 이것이 곧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이 땅에 속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 아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내 나라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선에 나가 일하면서 받는 것이 뭐 있습니까. 거저지요. 이걸 내 나라이니까. 집도 내 집이지요, 나라도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이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천국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당이 아니라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것에 대해 받은 생각은 일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도록 전도를 하면서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하나라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나라, 제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받기는 뭘 받습니까.

그런데 요새 교회에는 받는다는 생각들이 많고, 거저라는 것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거저가 자주 없어져 가는 것 같다. 병원에 가도 돈, 극장에 가도 돈, 학교에 가도 돈, 교회에 가도 돈, 어디나 돈이다. 햇빛이 거저요, 달빛이 거저요, 바람이 거저요, 비가 거저이듯이, 인술과 예술과 스승과 복음은 모두 거저라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저가 없을까. 돈 세상이요, 돌은 세상이다. 거저가 한없이 그림다. 밥 먹을 때도 거저 먹고, 잠잘 때도 거저 자고, 공부할 때도 거저 하고, 일할 때도 거저 하고, 날 때도 거저 나고, 죽을 때도 거저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땅 위에는 거저가 없는 것 같다. 하늘에나 가야 거저가 있을까. 거저의 세계가 없다면 세상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이다. 믿음의 세계란 거저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도 거저의 세계요, 소망의 세계도 거저의 세계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거저의 세계는 어디나 하늘나라다. 거기에는 거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 거저가 있는 곳에

영생이 있다. 사람은 유한을 가지고 무한을 낚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유한은 유한이고, 무한은 무한이다. 거저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이다. 거저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세계는 유한한 세계뿐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거저 속에 있다. 거저가 한없이 그림다. 주고파서 주고, 받고파서 받는 거저의 세계,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내 삶의 고향이리라.

내 삶, 내 고향이니까 거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바치는 것이 있어야겠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거룩한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바치는 거지요. 돈 몇 푼 바쳤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본래 거룩하시니까 “더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 달라는 것이지요. 내가 대통령을 알면 뭘 합니까. 대통령이 날 알아줘야지. 그래야 내가 국무총리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줘야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가끔 하나님은 내 귀에 대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줍니다. 그 알아주는 것이 깊어 가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바르트Karl Barth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그건 설교가 못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세계, 그 세계가 좋은 세계입니다.

요전에 다신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범신론, 무신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요전에 십계명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1조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다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인간신, 수호신 등의 범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3조인데 이것은 무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3조를 1조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무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일신론 사상입니다. 일신론은 다신론에 대한 반대입니다. “세상을 섬기지 말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예수의 사진을 걸어놓고 절한다.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사진을 걸어놓고 보기만 하지 절대 절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나.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뜻을 이루게 되면 주기도문인데 뜻은 이루지 않고, 사진에 절만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불교는 범신론입니다. 절간에 가면 자꾸 절하지요. 석가는 사실 내가 죽은 후에 내 모양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절을 해서 지금 이름이 절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고만 것입니다.

계명이나 주기도문은 같은 것입니다. 다신론에 대한 반대, 범신론에 대한 반대, 무신론에 대한 반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강조한 사람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힘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사랑의 세계, 그런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그것이 곧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권리의 포기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속에는 권리가 없습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형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